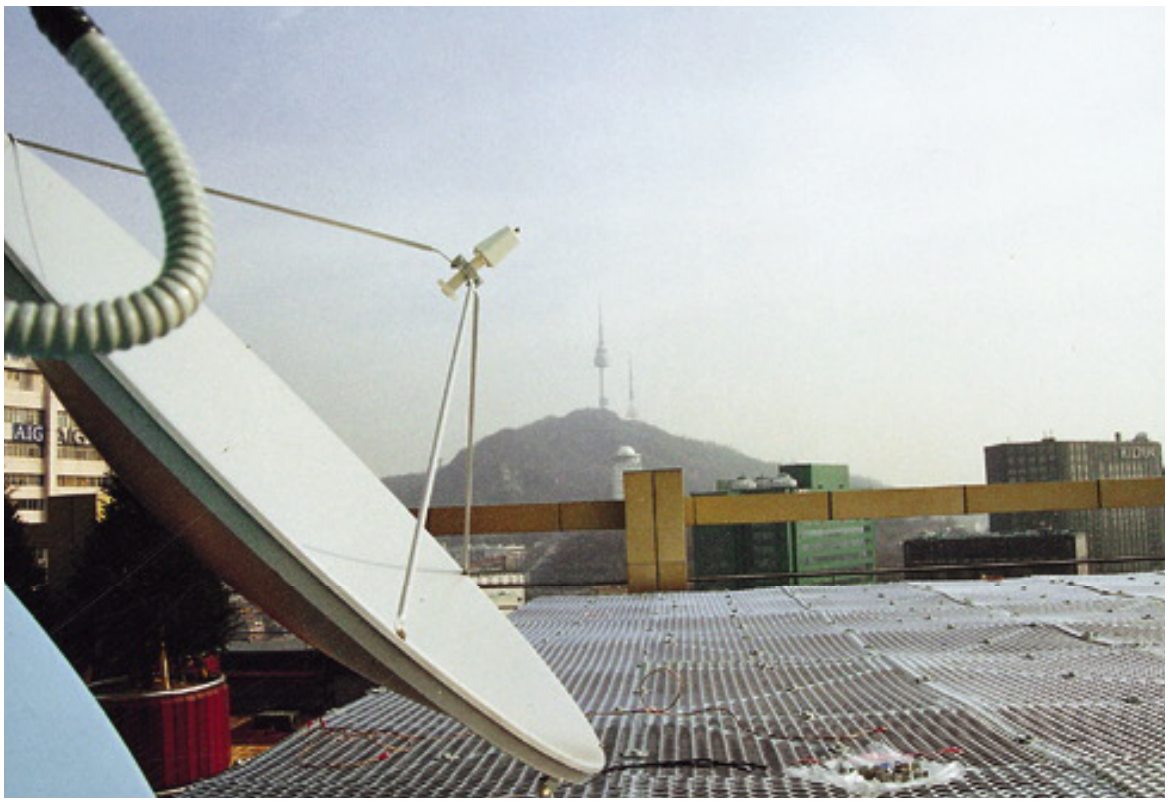
YTN 社報

• 발　　행 : YTN　　• 편　　집 : 홍보팀
• 대표전화 : 398-8000　　• FAX : 398-8789
• 제　　보 : 398-8282(빨리빨리)　398-8585(바로바로)
• 휴대폰 YTN뉴스 청취 : 200-2424

2003년 12월 9일 | www.ytn.co.kr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5-1 | 제 45호

'제 2창사' 순항

- 신사옥은 우리의 꿈을 담고 있다 -



신사옥 옥상에서 바라본 서울 타워

YTN 창사 10년, 질곡과 역경의 10년을 지치지 않고 극복해낸 뉴스전문채널 YTN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2004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아, 경영을 비롯해 프로그램을 혁신하고 뉴미디어의 선두주자로서 매체를 확장하고 사업을 다변화하는 등 YTN은 그야말로 새로운 방송시장 재편에 걸맞는 위상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시청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획기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을 준비하는 가시적 움직임과 의지는 신사옥 건설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소음이 끝나기도 전에 스튜디오를 세우고 첨단 방송시설공사를 이어가는 손길에 땀이 배어나고 있으며 탁트인 남대문과 남산을 조망하며 완성되어가는 사무실에는 새로운 기상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방송기반시설의 전면적인 개선과 확충을 위한 신사옥 건설은 현재 기반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2004년 3월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되고 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올 12월말까지 건물의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 마무리 공사를 서두르고 있고, YTN과 계약이 확정된 시공사들도 1월 중으로 스튜디오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 그리고 인텔리전트빌딩에 맞는 네트워크 공사 등을 끝내기 위해 공사를 서둘러 시작한 상태이다. 계획대로 2월초에 신규 발주된 방송시설이 완성되면 시설의 시험가동과 실험방송을 할 계획이며 사무공간의 완성과 함께 일부 시설들이 이전되기 시작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방송의 이전은 2월 하순으로 예정되어 있다. 뉴스전문채널의 특성상 방송의 이전은 1초의 중단도 없이 완벽하게 옮겨가야 하고 동시에 완전 가동되어야하기 때문에 작전을 치르듯 신중하고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방송을 옮기고 나서 모든 시설과 장비 그리고 제작여건을 정상화시키는 데 약 보름정도 잡고 있다. 이 기간동안 남아있던 장비가 옮겨지고 제작시설이 보완되면 이미 준비된 새로운 편성계획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이 방송되게 된다.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신사옥프로젝트는 YTN의 발전과 도약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신사옥에 도입될 첨단 디지털 시스템과 방송시설들은 YTN뉴스의 품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며 쾌적한 근무환경은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채널을 이끄는 YTN사원들의 사명감과 비전을 완성하는 보금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7층에서 바라본 서울역

제작국 · 기술국 등이 들어설 18층

한창 공사중인 20층 내부

12월호 HEAD LINE

|2| ▶ YTN · CCTV 협력강화 합의
▶ 낮 시간에 강한 온라인 뉴스
|3| ▶ YTN 입찰모형, 업계에 신선한 충격
▶ YTN단신 - 성희롱 예방교육
|4| ▶ 제 2창사를 함께 할 신입앵커
|5| ▶ 우수영상상 - 「천수만 석양의 철새 떼」
▶ 현장취재기 - '앵커에서 사건기자로'
|6| ▶ 새내기 기자의 수습기 - "너 여군출신이니?"
▶ 송태엽 기자의 연수기 - '낯선 대륙에 헤딩하기'
|7| ▶ 「백지연의 정보특종」 앵커 특별기고
▶ 지명관 교수 특별기고 - YTN에 바란다
|8| ▶ 돌발영상 파문 확산 - '돌바리' 는 자연산이야!

YTN · CCTV 협력강화 합의

중국사업이 YTN의 전 분야로 확대된다.

YTN과 중국 CCTV는 양사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10월 29일 업무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양사는 우선 뉴스 분야와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선 YTN은 중국 CCTV의 국제 방송인 4번 채널과 과학 교육 방송인 9번 채널의 화면과 기사를 무상 사용할 수 있게 됐고 CCTV는 YTN의 화면과 기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시사 중심의 뉴스를 특집으로 선정하여 공동으로 제작하고 생중계 형식으로 공동 방송하기로도 합의하고 실무팀을 구성해 구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사는 서로 상대방국에서 뉴스 취재를 할 경우 상호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상대방 회사에 뉴스 인력(기자, 기술직 및 경영직)을 보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한국에 지사를 설치하지 않은 CCTV는 조만간 한국에 지사를 설립할 계획을 밝히고 지사 설립 시 YTN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해 YTN 신사옥에 입주할 의사도 표명했다. YTN은 CCTV 이외에도 중국 인민일보 와 신화사 등 중국 내 언론사들과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안을 마련하고 있다.

YTN의 이번 중국 CCTV와 교류 협정 체결은 YTN이 적어도 국내에서는 뉴스 분야에서는 명실상부한 메이저 방송사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글로벌 미디어로 성장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YTN은 뉴스 분야에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동안 추진해온 대로 프로그램 생산 기반 확충과 콘텐츠 다양화 등 매체로서의 성장과 대중국 사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 CCTV 귀빈실에서 열린 협정 체결식에는 표완수 사장과 홍상표 국제부장, 김승환 베이징 특파원, 윤종수 중국사업팀장, 이교준 기자, 중국 측에서 짜우화용 CCTV 사장과 셩이라이 해외프로그램센터장, 장용푸 대외협력처장, 장허핑 영어채널 CP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 YTN에서 본 YTN 경쟁력

낮 시간에 강한 온라인 뉴스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았던 지난 10월, 우리 홈페이지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인터넷 생방송의 경우 시청률이 평균 400%이상 올랐고 盧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지난 11일에는 무려 1000%까지 치솟았습니다. 실시간 방송, 생중계만은 YTN의 몫으로 남겨놓겠다는 여러분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본 방송의 시청률은 기대만큼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굳이 둘을 비교한 이유는 온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섭니다. 우리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낮 시간대에 직장인 대부분은 TV나 신문보다 PC에 접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많은 노력들이 앞으로 인터넷 방송을 좀더 염두하고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낮 시간에 집중한 속보성 뉴스와 중계는 오히려 인터넷에서 더 먹힌다.

홈페이지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인구 4천5백만의 제한된 시장에서 똑같은 기사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보고 질 높고 차별화된 내용을 제공하는데 애쓰고 있습니다. 타사들이 기사에 EXCUSIVE, ONLY 등을 다는 것도 이런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도 돌발영상과 현장 생중계, 미디어 브리핑 등 차별화된 CONTENTS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CONTENTS에 대한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우릴 찾아온 새 고객에게 "역시 YTN이야!"라는 이미지를 심어 꾸준히 우리 매장을 찾게끔, 돌발영상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게끔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특히 아무리 질 좋은 NEWS 상품이라도 고객과의 첫 만남인 제목, 포장을 못해서 안 팔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아가 이제는 분석, 해설기사, 탐사보도, 대안을 제시하는 YTN만의 색깔을 지닌 NEWS가 필요한 때입니다.

온라인 기사의 승부는 일단 제목에서 결정된다!

또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동안 경쟁자들이 두 걸음을 나간다면 순위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자위를 하는 이 순간 타사들은 더 많은 자본과 기술, 더 나은 시장 지배력과 CONTENTS로 우리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이라는 우리만의 장점도 그리 오래갈 것 같지 않습니다. 보도자료는 언론사에 배포됨과 동시에 해당 정부부처나 기업체의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9.11테러'와 같은 사건사고의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특정 사안을 속보로 서비스하는 시간에 포털(PORTAL)에서는 이미 분석기사가 올라오기 일쑤입니다. 당신이 고객이라면 어느 매장을 찾아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경쟁상대는 이미 언론사만이 아닙니다.

경쟁상대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과연 나만의 상상일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던가요? 기대를 거는 부분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기자가 특정 기사를 썼는지 관심을 갖는 고객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또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사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는 사람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을 그려주는 기자, 언론이란 제 4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기자, 이를 잘 조화시켜 나가는 기자라면 속된 말로 뜰 수 있다는 겁니다. 막말로 언론사는 망해도 기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로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결국 핵심은 사람 상상력, 창의력 이다. · · ;;;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YTN은 사람이 전부인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쓴 기사가, 자신이 찍은 화면이 어떻게 방송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모니터조차 못하고 있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 홈페이지까지 들어와 동영상은 제대로 올라갔는지, 기사 정리는 제대로 돼 있는지, 이미지 컷은 적절히 선택했는지, 오자는 없는지 보라고 요청한다는 게 무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YTN'과 'CONTENTS 제작자'에 대한 고객들의 이미지가 한층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장 기 영 (디지털YTN 파견)

게 시 판

■ 포 상

특종상 은상 전가영(사회1부), 김태형(영상취재부) 공사용 중장비 지하철 터널 관통 보도, 유대식(LA통신원) 최성규 전총경 미국망명신청 보도 ·····12. 1

특종상 동상 이재홍(사회1부) 송두율 교수 구속기소 보도 11. 3
오인석, 권영희(경제부) LG카드 사태 협상 타결 보도
김정회(사회1부), 김종완(영상취재부) 브루셀라증 환자 집단발생 보도····· 12. 1

우수프로그램상 오윤정(제작1팀) 「백지연의 정보특종」 '백지연이 만난 사람' 제작

우수영상상 김태운(영상취재부) 「천수만 석양의 철새 떼」 영상제작 11. 3 / 강근배(영상취재부) 「성산대교 검은 그림자 기둥」 ·····12. 1

■ 공로상

김신영(편성운영부), 김영섭(마케팅1부) 매체설명회 성공적 수행
손동열(그래픽팀) 뉴스속보 문발 포맷 제작 ·····11. 3

■ 입사

홍지윤(국제부) 10. 27 / 김미연(국제부) 10. 28 / 김명희(국제부) 11. 4

■ 퇴사

임선혜(국제부) 11. 10 / 서동일(총무부) 11. 30

■ 승진

김백 사회1부장(부국장대우) ·····11. 10

■ 전보

유석현 편집1팀장(부장), 김흥규 편집2팀장(부장대우), 추은호 편집3팀장(차장), 기정훈 편집1팀, 박근표 차장대우, 김희준 편집2팀, 장민수, 지순한 편집3팀, 정재훈, 이종구, 김기봉 정치부 , 이승훈, 홍상희, 권영희 경제부, 이재철 차장대우, 오점곤, 김세호, 김수진, 박소정, 이대건, 전가영, 최영주, 홍선기 사회1부, 임수근 사회2부 , 송세혁 강릉지국, 윤현숙 부산지국 강성웅, 유재복 국제부, 신현준, 이승은 문화과학부, 임종주, 김재형 스포츠부, 김태현 국제부(북경특파원 준비) 11. 10 / 심창래 부장대우 미디어국 기획위원 11. 24

■ 부음

황지영(기획관리부) 부친상 11. 6 / 박근표 차장대우(편집2팀) 부친상 11. 11 / 김진두(문화과학부) 빙부상 11. 11 / 안재열 차장(마케팅2부) 빙부상 11. 14 / 김종욱(경제부) 부친상 12.2

■ 결혼

김은주(그래픽팀)11. 29 / 이영훈(타워사업국) 11. 30

YTN 입찰모형, 업계에 신선한 충격

11월 4일 방송기반시설 입찰 프리젠테이션

'입찰' 이란 보통 비즈니스 업계에서 하는 것이고 언론사에 몸담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낯설기 그지없었다. 이렇듯 생소했던 입찰업무는 이제 사옥팀에게는 일상생활처럼 친근한(?) 단어가 돼버렸다. 수십여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해야 하고 때론 협박도 하고 때론 얼러가며 비용절감을 위해 부심해야 한다. 국내 수위의 대기업들이 입찰에 참가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원칙에 어긋나거나 신의성실의무에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가차 없이 입찰에서 제외시키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단호하고 공정한 입찰진행을 통해 나름대로 YTN의 위상을 높였다고 자부한다. 나아가 업계에서는 YTN의 입찰모형이 기존의 관행을 깨는 새 모델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는 평가다.

1. 인테리어 입찰 (17층-20층)

공사중인 신사옥 20층 제1스튜디오

가장 먼저 10월 9일 입찰 설명회를 가졌다. 중앙디자인과 다원, 진 디자인, 셀 디자인, 국보 등 우리가 설정한 자격기준에 맞는 국내 수위의 업체들이 참가했다. 5개 업체가 제안서를 들고 왔고 9명으로 구성된 인테리어 심사위원단의 2차에 걸친 심사결과, 중앙과 진, 다원 등 3개 업체로 축약했다. 이 과정에서 사옥팀은 인테리어 디자인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뉴스그래픽팀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이들 업체로부터 프리젠테이션을 받았다. 이때 심사위원단 외에도 표완수 사장을 비롯해 사옥추진위원들(국장단)이 관람하는 등 열기가 드높았다. 특히 20층 뉴스센터(오픈 스튜디오)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업체들의 컨셉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심사위원단은 몇 차례 논의 끝에 이 부분만큼은 세트 전문가에게 맡기고 이번 입찰은 사무공간에 대해서만 국한시키자고 결론을 지었다. 심사위원단 외에 사옥팀과 총무팀으로 구성된 네고팀의 최종 네고 결과, 한달여만인 11월13일, 디자인과 가격에서 최고 득점한 중앙디자인이 최종 낙찰됐다. 신사옥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17층에서 20층까지의 사무공간과 뉴스센터, 1층 로비 인테리어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어 발주에 들어간다. 20층과 1층 인테리어는 각각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설계를 진행중이다. 인테리어 공사는 건물 소방준공일인 12월 10일 이후 착수돼 1월말 완료된다.

2. 장비도입과 이설공사

입찰규모가 40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업계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다. 그만큼 공정한 진행이 요구된 사안이었다. 이번 입찰은 신사옥 방송이전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요소인 주, 부조 1개씩의 신규 장비세팅과 구장비 이설작업을 포함한 SI 업체선정이다. 장비도입팀은 SI(System Integration)업체 선정과 관련해 장비도입까지 총괄 책임지우는 턴키입찰과 YTN이 70여개 품목의 장비를 일일이 사급으로 구매하는 방안에 대해 열띤 논란을 벌였으며 시공의 일관성과 총괄적인 책임소재, 그리고 현업부담 등을 들어 턴키입찰로 결론을 냈다. MBC미디어텍과 SK, 한전 KDN, 쌍용정보통신 등 네 개 업체가 응찰했다. 그러나 1차 심사결과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MBC와 SK의 설계도면이 동일한 것이다. 평소 방송시설을 주로 담당한 그들의 도면이 비록 우리의 컨셉에 부합되는 것이었지만 명백한 신의성실의무 위반으로 결론내렸다. 경위야 어떻게 됐든 우리는 두개 업체를 입찰과정에서 전격 제외시켰고 그 후 양사는 서로 간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장비 입찰경쟁은 한전 KDN과 쌍용으로 압축됐고 더욱 치열한 경쟁이 지속됐다. 낙찰자가 선정되기까지 한달여동안 갖은 루머가 떠돌았다. '한전이 YTN의 대주주라 이미 내정됐다.', '쌍용은 자격미달이다.' 등 경쟁사 흠집내기와 입찰과정 흔들기 사례가 빈발했다.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실무팀회의는 더 자주 소집됐다. 오픈베이스로 함께 논의하고 절차와 방법을 결정하며 원칙을 재확인했다. 동일 장비스펙을 제시해 2차 견적을 받고 네고팀은 끈질긴 가격협상을 벌였다. 기술국도 장비별 단가를 파악해 견적에 낀 거품을 걷어내는 등비용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았다. 결국 11월20일, 사옥추진팀은 양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공개적으로 최종 입찰을 진행했다.

추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아왔다. 결과는 한전 KDN보다 3천여만 원 적게 쓴 쌍용정보통신이 낙찰됐다. 한전은 YTN과의 특별한 관계와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는 사실에 상당한 아쉬움을 안고 돌아갔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가장 큰 규모의 입찰이었던 장비도입은 신규 주부조 테스트 기간에 맞추기 위해 2월초 완공을 목표로 곧바로 발주와 시공에 들어간다. 장비 납품이 3개월 남짓 걸리지만 전체 공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방송기반시설 공사

방송기반시설은 스튜디오 4개와 주부조, 신호분배실, 더빙실, 음악실, 조명 공사가 해당된다. 6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모두가 쟁쟁한 업계의 경쟁자들이지만 입찰의 세계는 냉혹한 법. 심사위원단의 1차 심사결과 MBC미디어텍과 SBS뉴스텍 등 2개사로 압축됐다. 역시 사옥추진위원단이 참가한 가운데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됐고 네고팀의 협상결과 11월 7일 MBC미디어텍이 최종 낙찰됐다. 현재 MBC미디어텍은 신사옥 20층 스튜디오와 주부조 분배실 등 공사를 진행중이고 12월 10일 경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4. 네트워크 공사

대형입찰로는 마지막 순서인 네트워크, 즉 인터넷망과 보도정보망 등 사내기간망에 대한 공사가 이어진다. 최근 제안서를 마감한 결과 6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기술국의 기술검토와 심사위원단의 1차 심사(기술력과 견적) 결과 3개 업체로 압축된 상태. 네고팀의 가격협상과 2차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곧 낙찰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같은 대형 공개입찰과 병행해 책상 및 사무가구와 칸막이 발주, 영상자료실 모빌랙, 전화교환기, 항온항습기, 옥외간판, 1층 로비 인테리어, 현수막 등 십여가지의 사급발주가 진행 중이다. 이 또한 경쟁을 시키고 협상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간단하지가 않다. 따라서 중요사안은 사옥팀과 기술국, 경영국 등 관련부서와 사전에 정밀검토하고 실무팀 논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압박도 크다. 이와 함께 3월 개국일정에 맞춰 밤샘작업을 진행 중인 대우건설 현장을 다독이는 것도 우리의 임무다. 사옥추진팀은 발주건이 마무리 되는대로 신사옥 현장에 상주하고 시공업체들을 중재하며 전체 공정을 꼼꼼히 챙길 것이다. 전담팀 3명으로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기술국 등 여타 부서의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소명감을 갖고 뛰고 또 뛸 것이다. YTN 신사옥 파이팅! 제2창사 파이팅!!!

이 귀 영 (신사옥추진팀장)

성희롱 예방교육

11월 18일 전사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 초빙된 문강분 노무사(위더스 노무법인)는 두 차례에 걸쳐 2시간씩 직장 내 성희롱문제에 대한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그 예방대책 등을 강의했다.

제 2창사를 함께 할 신입앵커

내년 3월 신사옥 이전과 함께 새롭게 선보일 신입앵커가 선발됐다. 10월 13일 원서 접수를 시작해 3차례에 걸친 오디션과 토론면접 등 여러 가지의 검증절차를 거쳐 6명이 최종 합격됐다. 12월 1일 첫 출근한 신입앵커를 소개한다.

성문규(73.8)
한양대 신방
경력 : EBS, 아리랑FM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뉴스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뉴스가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감동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김선영(80.9)
이화여대 불문학

꿈을 이루었다는 환희도 잠시,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아직은 그려진 부분보다 그려나갈 부분이 많은 새내기 앵커지만 전국의 시청자를 뉴스 매니아로 만들겠다는 다부진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YTN 파이팅! *..*

이승민(79.6)
덕성여대 영문학

평소 선망하던 방송사인 YTN의 한 식구가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면 대단한 열의를 갖고 각오를 다지게 되는데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희(81.4)
서울여대 언론영상

항상 배우는 자세로 겸손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해맑은 미소를 지을 수 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가슴이 따뜻한 앵커가 되겠습니다.

전현무(77.11)
연세대 영문학

중간자가 없는 사회.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장 적확하게 묘사한 어구입니다. 건전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모두 실종된 우리 사회는 아군이 아니면 모두가 적이 되는 대립과 분열의 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방송의 최 일선에 선 중간자로서 사회통합의 전령사가 되겠습니다.

김미선(79.8)
이화여대 유아교육

사실과 진실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갖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앵커가 되고 싶습니다. 매시간 뉴스를 업데이트 하며 쉬지 않고 역사를 써내려가는 YTN의 열정과 철저한 프로의식. 그것과 함께 할 수 있게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발로 뛰는 앵커가 되겠습니다.

우수영상상 - 「천수만 석양의 철새 떼」

400mm 망원렌즈에 담긴 새들의 향연

매일 아침이 그러하듯 출근과 동시에 일정을 확인한다. '천수만 가창오리' 일전에도 자연관련 영상물들을 취재해 보았지만 언제나 자연은 담아내기 쉽지 않은 피사체임에 분명하다.

차로 세 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간월호 천수만에는 가창오리 외에도 큰기러기, 백로, 쇄가리 등 철새들의 전시장이었다. 재빠르게 영상을 포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온 400mm 망원렌즈를 달고나니 카메라는 마치 포를 연상케 한다. 강한 바람 속에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하늘을 새까맣게 수놓은 수십만 개의 점들을 쫓기 시작했다. 겨울 철새들은 신경이 무척 예민하여 카메라를 세우기만 하면 순식간에 물수제비뜨듯 수면에서 튕겨 올라 어지럽게 날아가 버려 나의 애간장을 녹인다.

새들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부담감 속에 이곳저곳 포지션을 바꾸어가며 촬영을 하다보니 어느덧 천수만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석양이 지는 천수만 일대의 숲에서 갑자기 하늘로 용솟음치는 가창오리 떼들……. 그들이 그려놓는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탄성이 쏟아진다. 자유로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가창오리, 북한에서는 태극오리라고 불러왔으나 지금은 반달오리라고도 부르고 있다. 가창오리는 동북아시아에 분포하는 멋지게 생긴 오리로 금세기 초까지는 매우 흔했었지만, 아쉽게도 현재에는 지구상에서 사라져 가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오리가 되어 버렸다.

붉은 노을 속에 하늘을 뒤덮을 듯 수십만 개의 점들이 기하학적인 형태를 만들어내면서 누군가가 지휘를 하듯 이리저리 무리지어 날아다니면서 군무를 하는 그들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이 같은 군무는 가창오리들이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새벽녘과 석양녘에만 나타나는 진풍경으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결코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 있게 날아다닌다는 것이다.

뷰파인더 속에 담겨지는 자연의 신비로움에 탄성이 절로 나오고 가창오리들의 화려한 군무에 추위와 시간도 잊은 채 반나절이 흘렀다. 벼 낟알과 풀씨를 먹기 위해 논으로 내려앉으면서 그들의 화려한 군무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세계희귀종이 되어버린 가창오리 떼가 다행히 우리나라에 머무는 것은 그들의 주식인 벼를 경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지구상에 생존하는 가창오리의 거의 전 생존집단이 월동하는 국가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새가 한국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창오리를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가창오리의 화려한 군무를 매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짧은 기획기간과 반나절 정도의 촬영시간으로 인하여 아쉬움이 많은 취재였다. 가창오리의 화려한 군무로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 수 있었기에 우수영상상을 받게 되었지만 안개에 묻힌 천수만의 새벽녘을 담았으면 영상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 태 운 (영상취재부)

현장취재기

'앵커에서 사건기자로'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절망' 이라고 말했다. YTN이라는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나는 '죽음에 이르는 병=메너리즘' 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월급쟁이로서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가장 경계해야 할 삶이라고 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한 선배가 술자리에서 말했던 '항상 깨어 있어라' 라는 충고가 가슴 한구석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깨어 있는다는 이 추상적인 멘트를 실천에 옮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이다. 메너리즘이라는 병은 부지불식간에 슬며시 찾아오니까.

21세기가 시작되는 2천년 1월 청운의 꿈을 품고 YTN에 입사한 지가 엊그제 인 듯 하다. 언제나 점잖은 방송을 하고 싶다는 것이 나의 바람이었기에 YTN은 그런 내 욕구를 충족해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2002년 11월 나에게는 일대 전환의 순간이 찾아 왔다. 내가 원한 대로 사회부로 인사가 난 것이다. 곧바로 일요일 밤부터 사건 1번지라는 강남 일대 5개 경찰서를 돌고 월요일 저녁 사회부 책상에 앉았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이 회사에 3년 가까이 다녔나 싶을 정도로 마치 다른 회사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며 농담도 하고 담배도 피던 선후배들이었지만 어찌나 생소 하던지. 그때부터 나의 좌충우돌은 시작되었다. 스스로 잘난 줄 알며 살아 왔지만 초반 '최 모 기훈' 선배에게 지적을 받을 때마다 그 유명한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는 말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쳤다. 경찰서를 돌아다니면서 본 것은 우리나라에는 술 마시고 싸우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 그리고 아내를 때리는 남편도 많다는 것이었다. (맞는 남편도 상당수였다.) 인간은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다. 지금은 많이 익숙해 졌고 얼굴에 철판이 조금씩 깔리기 시작했다. 사회부의 메커니즘이 몸에 익다보니 역시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느냐다. 상식선에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부에 와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여러 경험을 했다. 대구참사 때 현장에 있었던 것, 이산가족 상봉을 취재하러 금강산에 간 것 등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추억이 돼가는 것 같다. 금강산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함께 갔던 윤 모 선배의 코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 기억난다. ^^;

지금은 수원지사에 내려와 한강 이남 경기도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김학무, 김태형, 김명우 막강(?) 3김 트리오가 물샐 틈 없는(?) 경계를 서고 있다. 수원에 와 보람도 많이 느낀다. 얼마 전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한 여고생의 얘기를 리포트 한 적이 있다. 효심도 효심이지만 수술비와 치료비가 없어 여간 힘든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사연을 담은 보도가 나간 뒤 각지에서 성금이 모여 6천여만원의 병원비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었단다.

고민도 생겼다. 담배와 살이다. 기사를 쓴다는 행위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못 끊고 연신 피워대는 지도 모른다.

또 술자리가 잦다보니 피둥피둥 살이 찐다. 오랜만에 본 친구들은 나를 이름 대신 '아저씨' 라 부른다. 하지만 그깟게 대수겠는가, 살이 찌는 만큼 또 기사를 쓰는 만큼 나의 경험과 식견도 살이 찐다.

김 명 우 (사회 2부)

새내기 기자의 수습기

"너 여군출신이니?"

"그런데 말입니다. 또 다른 건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7월의 어느 날, 새벽 6시. 횡설수설하며 앞뒤가 없는 보고를 마쳤더니 일진이 대뜸 물어보신다. "너 여군출신이니?" ",,,... 네?"

어디서 주워들었는지도 모르는 군대어투까지 쓸 정도로 바짝 얼어붙게 만든 수습생활. 나보다 먼저 기자가 된 지인들을 통해 수습생활이 어떤지 대략이나마 알고 있다던 내 생각이 자만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영장신청과 청구를 구별하지 못해 우물쭈물하는 내 어깨위로 쉴 틈 없이 쏟아지던 선배의 호통으로 수습생활이 시작됐다.

수습 첫 주, 잠이라면 일가견이 있는 내가 하루에 30분밖에 자지 않고도 멀쩡한 걸 보며 인체의 신비를 느꼈다. 수습 둘째 주, 성추행 정도는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혐의사실을 자세히 읊어대는 두꺼워진 얼굴에 스스로 놀랐다. 라인이 바뀔 무렵, "특별한 건 아닌데요." 한 인간의 죽음을 뉴스가치로 판단하는 내 모습에 소름이 끼치기도 했다.

세상의 그늘진 곳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선택한 기자의 길. 기쁨보다는 슬픔의 힘을 긍정할 수 있는 기자가 되리라던 다짐은 어느덧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 묻히기 일쑤였다. 왜 기자가 되고 싶었는지, 어떤 기자가 되고 싶은지, 피곤한 심신에 희미해져가는 초심을 돌아보게 만드는 건 선배들의 꾸중보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취재하느라 연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뻗치기를 하던 어느 날. 보도 자료를 받고 기자회견장을 메웠던 기자들이 하나둘 일어설 때 한 조합원이 외친다.

"복귀율이 그렇게 높다고 쓰는데, 직접 항만에 가봤어? 도로에 화물차가 다니는 걸 본적이 있냐구! 제발, 앉아서 쓰지 말란 말이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느새 보도 자료만 넙죽 받아먹고 있는 앉은뱅이 기자가 되지는 않았나 부끄러웠다.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여건이 안돼서 따위의 변명으로 은근슬쩍 타협하고 싶을 때마다 그때의 부끄러움을 떠올리며 남보다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기사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수습일지에 빼곡히 들어찬 무수한 다짐과 반성을 뒤로 하고 12월 23일이면 이제 수습 딱지를 떼게 된다. 수습이라는 말 아래 용서받을 수 있었던 미숙함과 아마추어리즘과는 안녕을 고해야한다는 얘기다.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다는 아쉬움을 내뱉기엔 당장 우리 8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너무 크다. 특히 부산에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 내게는 더욱 그렇다. 회사 안에서는 수습을 갓 뗀 신참기자라 할지라도 밖에서는 YTN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기자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겠다. 때론 힘에 부치고 지칠 때면 2진 기자실에서 이를 악물었던 밤들을 떠올리고, 외로울 때면 같이 울고 웃었던 동기들과 선배들의 얼굴을 가슴에 새길 것이다. 든든한 기초체력이 될 지난날의 기억을 소중히 품은 채 조금 더 당당하고 씩씩하게, 내게 다가오는 새로운 날들에 부딪쳐 갈 것을 다짐해본다.

윤 현 숙 (부산지국)

송태엽 기자의 호주 연수 비망록

'낯선 대륙에 헤딩하기'

송 태 엽 (보도국)

'4BC' 'Breakfast with John and Ross' 의 진행자와 함께 왼쪽부터 존 밀러, 송태엽 기자, 로스 데이비

낯선 대륙 오스트레일리아에 온지 넉달. 생활이 안정돼 가면서 보도국 식구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그리운 것은 청진동 대폿집 골목. 제가 돌아갈 때면 이미 회사는 남대문 사옥으로 이전해 있겠지만 그래도 제 서식지는 끝내 청진동이 될 것이란 예감입니다. 우리 자주 쓰는 말이 있죠. "까짓거 맨땅에 헤딩하면 되지." 7월14일 오전 7시 브리즈번 공항에 내렸을 때 제 심경이 바로 그것이었답니다.

제 전공을 저널리즘과 부전공인 아시아학입니다. 이것 말고 과외로 하는 활동이 있는데 그것은 호주 언론인 친구사귀기입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퀸즈랜드주의 유력 라디오 방송인 '4BC'를 방문했어요. 호주는 땅이 넓어서 그런지 라디오 방송, 그중에도 AM 네트워크가 발달해 있고 아직도 영향력이 매우 크답니다. 전국적으로 280여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있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특수목적을 가진 국영방송이고 나머지가 상업방송입니다. AM은 뉴스와 시사정보 중심이고 FM은 거의 음악만 방송합니다. '4BC'는 그중 제가 살고 있는 퀸즈랜드주 남동부와 뉴사우스웨일즈주 일부의 인구밀집지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FM 한두 곳을 제외하고 종합청취율이 수위권을 달리는 곳입니다. 특히 새벽 5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시간대에는 'Breakfast with John and Ross'라는 뉴스토크 프로그램으로 청취율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존 밀러와 로스 데이비를 찾아가 만나봤습니다.

그날은 마침 하워드 총리가 전화로 방송에 참여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8시쯤이었는데 본래 언론인 출신인 존은 복지정책 등에 대한 딱딱한 질문을 계속한 반면 엔터테이너 출신인 로스는 럭비나 총리의 신상에 관한 가벼운 질문을 계속하더군요. 우리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프로듀서 말로는 하워드 수상은 '4BC'에만 6주에 한번 꼴로 출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에는 퀸즈랜드 주지사인 피터 비티가 스튜디오에 출연한 걸 방송으로 들었는데 그야말로 별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하더군요. 노동당 출신이어서 그런지 자유당 출신인 총리를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4BC' 방문에서 느낀 두 가지 점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각종 소스를 '멀티유즈' 하는데 매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각국에 파견된 특파원 리포트를 포함해 '4BC'가 속해있는 서던 크로스 네트워크의 모든 오디오 소스가 디지털 파일로 저장돼 있어 클릭 한 번으로 송출이 가능했습니다. 협소한 2층 건물안에 자매방송인 '4BH'가 같이 입주해 있었는데 같은 소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가 도입하려고 했던 D-CART와 유사한 DCS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라디오 방송을 갖게 돼서 기자들의 빛나는 리포트를 '멀티유즈'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느낀 점은 언론인의 채용과정이 우리와 매우 다르고 학벌보다 채용 후의 발전과 전문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입니다. 존의 경우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는 대신 ABC 방송에서 카뎃 저널리스트(Cadet Journalist, 우리 수습기자에 해당) 생활을 3년이나 했다고 하네요. 대학교육을 현장 실무교육으로 대신한 셈이죠. 호주 기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언론인을 10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등외인 카뎃 저널리스트로 1~3년, 각 등급마다 1~2년씩 근무해야 승급할 수 있고 4등급 (Grade 4)이 되려면 저널리즘이나 이와 동등한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방송의 경우 경찰, 법원, 정치, 문화 기자가 특화돼있고 한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합니다. 기자의 연봉은 중상급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백지연의 정보특종」 앵커 특별기고

"한 호흡 쉬는, 울림 주는 뉴스"

백 지 연 앵커

사보에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은 지 벌써 몇 개월. 무슨 글을 쓸까 생각을 하다보니, 사보란, 본디 '식구' 끼리 소식을 전하며 정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공간. 무언가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 감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된다. 그 와중에 떠오른 사담 한 토막.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직업의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는 자리. 시중의 첨단 유머를 먼저 전해볼까 하여 저고리 안주머니 수첩까지 꺼내들며 나서는 사람이 있다.

"요 몇 개월 수도 없이 들은 말, '코드' 우리말로 정확히 옮기면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언뜻 듣기에 쉬운 문제인 듯한데 금세 답이 나오지 않는다. "글쎄" 모두들 머리를 짜보는 듯한 모습이지만 대부분 영한사전에서 볼 수 있는 말들만 끄집어낸다.

"정서? 마음? 화음?"

여기까지 나오자 출제자는 웃음을 삼키지 못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하며 내 놓는 정답,

"수준!"

실컷 머리를 굴리던 사람들이 허탈한 웃음으로 박장대소를 한다.

언어는 사회의 약속이지만 말이 대중 속에서 회자되다 보면 동음이의어는 얼마든지 탄생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요즘 '코드'의 의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요즘 난무하는 이 '코드'의 의미를 우리가 늘 만나는 뉴스나 인터뷰와 접목해본다면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문뜩 이 화두를 우리 모두에게 던져 보고 싶다.

TOUCH THE RIGHT CHORD.....

내친 김에 한 가지 생각만 더 해보자.

무엇이든 첨단을 좋아하는 요즘 세상. 휴대 전화 하나도, (돈 한 푼 못 벌고 있는 학생들까지) 모두들 첨단, 첨단을 외치는 세상. early adapter들이 생산 회사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이 첨단의 세상. 첨단은 무소불위인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첨단의 첨단을 달리는 미국이란 나라가 왜 빈 라덴을 2년도 훨씬 넘는 동안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는 바로 '정보 부재' 때문이란다. 첨단의 나라에 정보 부재? 한 미국 관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빈 라덴은 우리의 high-tech 전쟁에 low-tech로 맞서고 있다"고. 무슨 말인고 하니, 열성 지지자들 틈에 숨어있으면서 이동할 때는 낙타나 당나귀로 산악을 이동하고 당나귀로 쪽지를 전하는 빈 라덴의 나귀 통신망을 미국의 첨단 위성도 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low-tech的' 발상과 '코드'.

요즘 유행하는 '코드'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난 잘 모르겠고 사실, 관심도 크게 없다. 다만 인구에 회자되는 '코드'라는 것의 의미를 떠올려보다 보니 생각은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뉴스를 만들고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 어떻게 '코드'를 맞추어야 하는가. 심금을 울리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청자의 마음에 무언가 '울림'을 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최첨단을 외치며 초고속으로 달리는 것에 익숙한 대중에게, 어쩌면 그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보와 속보를 전해야 하는 YTN 식구들. 그것도 24시간을 쉴 틈 없이. 듣기만 해도 숨이 차고 상상만 해도 진이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로, 때로는 한 호흡을 쉬며 low-tech적 발상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달려가다 달려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긴 호흡을 삼키며 눈을 뜰 때 어느 순간 시야에 꽉 차게 들어오는 무언가가 있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지 않던가.

41년을 옹기만 구웠다는 장인의 세계를 본 적이 있다. 햇살도 없이 습한 방, 늘 젖은 황토와 물레 앞에서 40년을 혼자 앉아 있던 사람. 동료나 관객도 없이. 40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을 옹기쟁이가 싸워왔을 고독의 깊이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로 옹기는 깊고 그윽한 맛이 있을 것이다. YTN의 역사가 10년을 기록하는 것에 맞춰 새 사옥으로 이전한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다. '뉴스쟁이'의 또 다른 10년이 쌓일 때 YTN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뉴스를 전하며 세상의 '코드'를 울리고 있을까. 궁금할 따름이다.

특별기고 - YTN에 바란다

품위·양식이 넘쳐흐르는 TV

지 명 관 교수 (한림대 일본학 연구소장)

한 때는 어떤 신문이 대통령 선출을 가능하게 했다고 자랑을 한 적이 있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일반 신문이 아니라 TV나 인터넷 신문들이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은 매스컴이 다양해져 어떤 특정 미디어가 선거를 좌우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YTN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전파매체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자랑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럴만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뢰도와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어떤 TV에 대한 그러한 전통적인 신뢰도는 물론 나날의 프로그램으로 세월을 두고 쌓아올리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그것도 자칫하면 하루 이틀의 프로그램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시일 내에 YTN이 해외동포에게까지 영향 미치도록 성장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이것을 어떻게 더욱 신장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금후의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한 두 가지만 들고 싶다.

우리나라 매스컴이 지닌 약점의 하나가 이웃 일본에 비해서도 너무나 자국중심이라는 데 있다. 가령 신문사의 사설을 보아도 거의가 국내문제에 국한돼 있다. 여기에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 소득이 아직 남보다 낮다고 불만이지만 사실은 세계 상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너무 급속한 성장이었던 탓인지 우리의 매스컴은 아직도 지나치게 자국중심의 보도에 치우치고 있다. YTN은 그런 현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내가 더 잘살아야 한다는 몸부림만 아니라 내가 남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를 품위 있게 만들고 안정시키고 성장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

같은 관점에서 오늘 그 무엇을 고발하는 프로그램 이상으로 의무를 다하고 남을 돕고 보살펴주는 프로그램이 우리를 흐뭇하게 하고 격려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인간에게 善한 것이나 남을 위하는 것을 찾는 의지와 惡한 것이나 나만을 위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전자를 격려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것임은 두말 할 것 없지 않겠는가. 각박해져 가는 현실 속에서 YTN은 더욱더 우리의 善意志를 격려하면서 흐뭇한 사회를 지향해 줄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권리를 찾기 위한 그 삼엄한 투쟁을 보도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의무를 다하는 따뜻한 모습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보도해 줬으면 한다. 오늘의 매스컴에서는 그런 씬이 너무나 적지 않은가 싶다. 정말 앞으로 YTN은 더욱 품위 있는, 양식이 넘쳐흐르는 TV가 되어 주었으면 한다.

돌발영상 파문 확산

'돌바리'는 자연산이야!

아이를 갖는 것을 금기 또는 촌스러운 일로 여기는 '언' 나라의 한 마을. 바야흐로 '언' 나라는 복제의 절정 시대를 누리고 있었다.

거기 키가 작아 '왜' 라 불린 가난한 사내가 있었다. 왜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여인의 뱃속에는 어찌어찌 그의 아이가 들어 섰는데... 왜는 빈곤한 살림 때문에 복제는 꿈도 못 꿨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왜소함이 그대로 복제되느니 차라리 아이를 낳길 바랐다. 진화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므로...

여인은 물론 펄쩍 뛰었다. 그러나 왜는 여인을 달랬다. 몰래 낳으면 된다고... 낳은 뒤 복제 아이라고 하면 될 것이라고... 열달 뒤 아이가 태어나고 왜는 아이 이름을 '돌바리' 라고 지었다. 왜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은 친구인 '개' 와 '암' 에게로 전파되었다. 물론 복제한 것으로...

개와 암은 살림이 넉넉하고 외모도 수려해 각각 아홉과 열한명의 복제 자식을 두고 있는 터였다. 이들은 가난한 왜가 복제를 했다니 신기하기도 했지만 언젠가 하나는 하겠지 했으므로 그런가 보다 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더욱이 돌발리가 자연산일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다.

그러나 돌바리가 자라면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돌바리가 왜를 별로 안 닮은 것 같아"

"아직 어리지만 키도 크잖아?"

"아주 똑똑하다는데?"

돌바리가 개나 암의 복제 자식들보다 머리나 성격이 모두 출중했기 때문에 의문은 더욱 증폭되었다. 사실 개와 암의 복제 자식들은 스무명이 하나같이 외모만 번드르했지 뭔가 생각이 모자라고 창의력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버르장머리로 보자면 건방지기가 짝이 없었다. 개와 암은 왜를 찾아가 물었다. "어찌 된 건가?" 끈질긴 추궁 끝에 왜는 그만 털어놨다. 언젠가는 알게 될 사실이므로...

"돌바리는 복제 인간이 아니야, 자연산이야"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연산이라니... 개와 암은 머리를 싸맸다. 단 한번도, 어떤 부분에서도 왜에게 뒤져본 적이 없는 그들이었다.

'자식 대에서 역전되면 어쩌나?' '자연산? 새로 하나 낳아봐?' 그러나 불행히도 이들은 이미 발기부전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들은 돈이 많았다. '그래 시험관 아이를 낳자!' 이렇게 해서 개와 암은 시험관 아이를 낳게 되었다. 개와 암의 시험관 아이가 돌바리보다 나을 수 있을까? 시험관 아이를 안고서 개와 암은 이렇게 외쳤다.

"어차피 돈으로 만든 아이... 최고로 키우는 거야, 돈으로!" 이 아이들이 과연 돌바리를 능가하고 최고의 모습으로 자라날 지는아무도 모른다.

왜냐고? 아직 안 컸으니까!

돌발영상이 세상에 나오고 일곱 달이 지났다. 말도 많고 일도 많아졌다. 급기야 돌발영상이 언론 전반에 던진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돌발영상 자랑을 스스로 해보라는 홍보 담당자의 압력이 본인에게 가해지기에 이르렀다. 낯간지러운 일이라 사양을 해봤지만 오~ 막무가내인 압력! 기왕 하는 김에 '쎄게' 하려고 한다.

자, 돌발영상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아시다시피 KBS, MBC가 비슷한 무엇을 시작했고 SBS도 틈틈이 동정을 살피느라 우리 기자들을 귀찮게 하고 있다. 한발 앞서, 그러나 돌발영상보다는 여러 발 늦게 CBS와 오마이뉴스도 역시 비슷한 무엇을 한다.

돌발영상이 소위 '뜬' 이유?

처음엔 몰랐는데 비슷한 무엇들의 정체를 알고 보니 비슷한 무엇들보다는 훨씬 잘(?)만들기 때문이란, 건방져 보이지만 회피할 수 없는 답에 이르고 만다.

아무리 잘 만든다고 다 뜰까?

돌발영상이 '뜬' 배경에는 인터넷이라는 괴물이 버티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YTN 홈페이지에 돌발영상 서비스가 오픈 된 직후부터 박희태씨의 '촌놈 이장' 발언을 필두로 이른바 히트작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히트작을 나열해 볼까?

'촌놈 이장' 말고도 '민주당 분당 전사 7단' '추미애 VS. 윤영관' '기습 키스당한 대통령' '양가 아저씨' '잔머리는 누구?' '마의 5초' '보수 꼴통 국회' '우리 모두 강남에 살아요' '야당본색' '발기는 어디에서?' '강금실을 웃겨라' 그리고 최근의 '나는 검도 초단' 까지 일주일에 적어도 하나 꼴로 '대박'이 터지고 있다.

위에서 인터넷이란 괴물을 얘기 했는데 무슨 말인고 하니 돌발영상을 링크 시켜 놓은 사이트가 부지기수고 정치적 색채가 강한 사이트는 물론이고 유머나 엽기 사이트에도 거의 매일 돌발영상이 게재된다. 그냥 게재되는 수준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클릭수와 수십 수백의 추천 그리고 보통 수십개의 꼬릿말이 따라 붙는다. 한 신문이 돌발영상을 '국회 버전 개그 콘서트' 라고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심심하신 분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가서 돌발영상이란 이름으로 카페 검색을 해보시라. 최근 석달간 돌발영상이란 이름을 붙여서 자기들 카페에 퍼다 나른 것만도 2백개가 넘는다. 그래도 심심하면 돌발영상 팬 카페에 가보시라. ㅎㅎㅎ(함승희식 웃음)~ 개설 두달 만에 회원 수 4백을 돌파했다. 개설 2년이 된 정애숙 앵커 팬클럽 추월도 얼마 남지 않았다. (ㅎㅎㅎㅎ)

최근 모 언론상에 응모하느라 돌발영상 관련 기사들을 모아봤다. 우와~ 스무개가 넘는다. 마음에 드는 기사 제목이나 문구를 나열해 보겠다.

'쉿! 입조심 돌발영상 떴다' (미디어 오늘, 9/16) / '정치 불신 속에서 웃음과 고민을 전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도' (대자보, 9/26) / '공중파 뉴스 죽음보다 깊은 잠...TV뉴스 본연의 책임 다하는 돌발영상' (조선일보 전여옥 칼럼, 11/3) / '수십년 방송 보도 관행에 대한 발칙한 문제 제기' (TV 카메라 기자협회보, 11/11) / '권위 무너뜨리는 돌발영상의 즐거움' (문화일보 손석희 칼럼, 11/13) / '국회 버전 개콘에 개콘이 울고 간다' (일간 스포츠, 11/16) / '돌발영상의 도발' (YTN, 11/19) / '지루한 뉴스는 가라' (MBC 아주 특별한 아침, 11/19) / '노컷이 뜬다...돌발영상이 시발' (기자협회보, 11/19) / '시사 만화가 온라인 시대를 맞아 돌발영상으로 진화' (국민일보, 11/20) / '뉴스도 형식 파괴...지상파 따라하기 그쳐' (세계일보, 11/25)

한 가지만 더 자랑하도록 하겠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가보면 메인 화면에 돌발영상이 고정 메뉴로 올라와 있다. 이들은 YTN이 하루의 시차를 두고 돌발영상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메인 고정 메뉴로 돌발영상을 띄워놓고 있다. 또 다른 포털인 네이트도 매일 일정 시간동안 돌발영상을 메인 화면에 노출 시킨다. 역시 하루의 시차를 두고... 그리고 다른 포털들도 일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거나 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YTN과 접촉하고 있다. 자랑이라는 건 이러한 현상이 철저히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디지털 YTN은 돌발영상의 상품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포털 공략 전략을 세웠고 이는 매체 영향력에서 지상파에 상대적으로 뒤지는 YTN의 한계를 훌륭하게 보완해 주고 있다. 보완이 다 무엇인가? 돌발영상에 관한 한 네티즌의 반응에 불을 지른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디지털 YTN 분들께 감사하단 말을 아니 할수 없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다. 어느 선배는 돌발영상이 절정의 순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절정의 순간은 뒤집어 하산을 준비할 시간이란 의미도 지닌다. 하산하지 않고 신선놀음을 계속하려면 어찌해야 하나? 돈이면 무엇이든 최고를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어렵게 개척한 땅을 제 땅이라며 빼앗으려 하는데도 돌발영상은 그저 흐뭇해하면 되는가? 조직원은 가능성의 씨앗을 뿌릴 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열매는 조직이 거두는 것이라고... 해가 저물기 전 신선놀음할 비책을 찾아야 한다.

노 종 면 (편집 2팀)